

할머니의 결혼요구에 당황하던 노처녀

하루는 하도 성화를 하시길래 “할머니 염려마세요. 다리 밑에 가서 지겟군과라도 결혼할게요”하니 까 세상사와는 등진 듯한 할머니께서 깜짝 놀랄 명령을 하신 것이 지금도 컷전에 쟁쟁하다. “애 보라, 지겟군도 저 좋다 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내가 결혼하려고만 하면 누구하고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 속의 20대 미혼녀의 환상을 깬그리 박살내셨던 것이다.

유근 밋
85-11

박영숙 (전 YWCA연합회 총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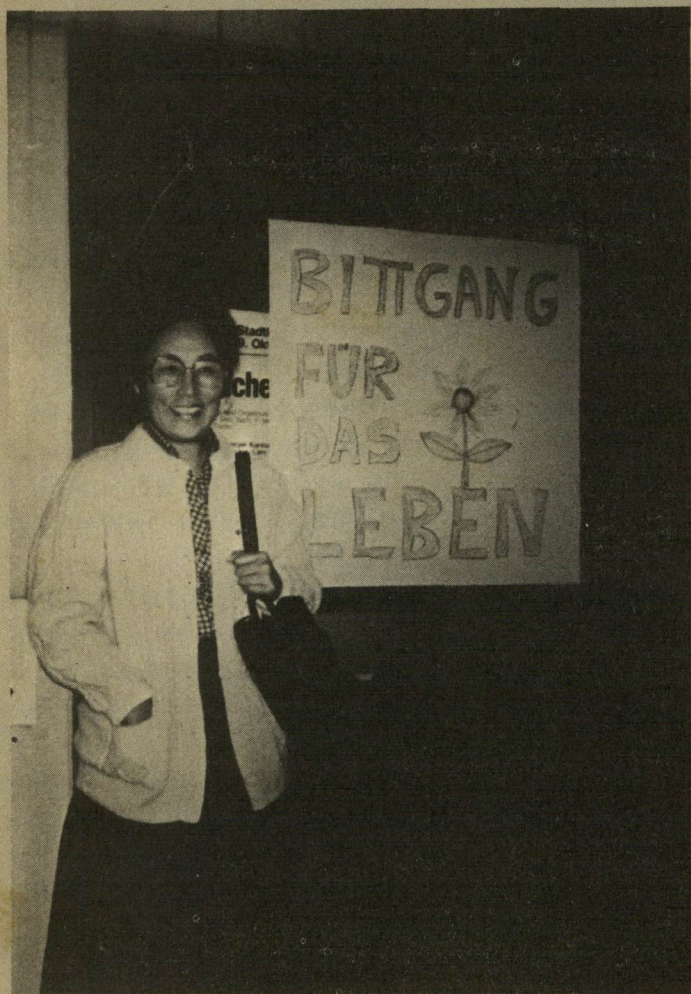
6·25와 함께 시작된 20대

지금 50 중턱을 넘는 사람들은 약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난리를 여러번 경험한 세대다. 이미 세상을 떠나서 자세하게 그 사실을 밝힐 수는 없지만 언젠가 들려준 어머니의 말씀에 따르면 내가 아직 어머니의 젖을 빨 때 살았던 평양에서는 중국사람들을 때려 죽이는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국민학교 시절에는 일본 사람들이 소위 대동아전쟁이라고 부르는 제2차세계대전이 일어나 생활은 궁핍했고, 교육도 공격심을 키우는 데 치중했다. 차차 고학년이 되면서 근로봉사대다 뭐다 하면서 공부보다는 노력봉사로 끌려 다니다가 해방을 맞이한 것은 조부모를 따라가 살던 만주땅에서였다.

일제하에서 천대받던 만주사람들의 무섭던 손아귀에서 벗어나 두만강을 건너 일단 고향인 평양에 피난 보따리를 풀었으나 그것도 잠시뿐, 우리 가족은 몇 팀으로 나뉘어서 있는 돈을 다 털어 안내인을 앞세우고 38선을 넘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얼마후 광주의 숙부댁에서 여순 반란사건을 맞이하여 군인이었던 숙부의 가족들과 함께 어수선했던 난리를 겪어야 했고 이어 서울에서는 6·25를 만나야 했다. 또한 1·4후퇴 당시에는 제주도까지 밀려가는 등 내가 20대를 맞이 하기까지의 우리 가정은 갖은 우여곡절을 겪어야만 했다.

나의 20대는 6·25사변과 함께 시작됐다. 그래서 학생생활도 입학은 부산 피난대학에서, 졸업은 환도 후 서울본교에서 맞이하는 형편이었다. 공부는 천막 밑에서 맨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했다. 현재의 학생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상황에서 대학생으로서의 꿈을 날려 보낸 셈이다.

나는 40세가 다 되어 결혼한 처지여서 나의 20대 후반은 내가 몸 담고 있었던 YWCA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했다. 나이 먹는 것도 잊은 채 말이다. 그래서 여자는 적당한 나이에 좋은 짝을 만나 아들 딸 낳고 오손도손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신 나의 할머니는 30이 가까와지도록 결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내가 한심해서 손녀딸의 직장에 나오셔서 나의 상사에게 당신을 다 닮아도 좋은데 결혼하지 않은 것만은 배우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하곤 했다. 직장 동료들이 우리 할머니의 출근부를 만들어야 하겠



다고 했을 정도였다.

행여 내가 감기라도 걸려 앓는 날이면 머리를 숙이고 기도할 때 하던 말씀이 지금도 나를 미소짓게 한다. '이렇게 아플 때는 남편 손이 약손인데' 하시며 한숨 짓던 일이다. 나에게 결혼할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할머니는 옛날 젊었을 때의 달콤한 사랑 이야기까지도 서슴지 않고 했다. 그렇게 긴 발이랑을 남편과 소곤거리며 김을 매노라면 힘든 줄을 전혀 못느꼈다는 것이다. 어느날엔가는 시집을 못가서 새 이불도 못 덮어보는 내가 측은하다고 새이불을 사 놓고 기다리던 할머니였으니 오죽했겠는가.

하루는 하도 성화를 하시길래 "할머니 염려마세요. 다리 밑에 가서 지겟군과라도 결혼할게요" 하니가 세상사와는 등진듯한 할머니께서 깜짝 놀랄 명언을 하신것이 지금도 귓전에 생생하다. "애 봐라, 지겟군도 저 좋다 하는 사람과 결혼한다" 내가 결혼하려고만 하면 누구하고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속의 20대 미혼녀의 환상을 깬그리 박살내셨던 것이다.

꿈과 낭만을 심어준 아영생활

나의 20대가 비록 6·25를 전후한 혼란 속의 세월이었지만 방학 때마다 다녀 기독교학생들이 한주간을 함께 보내며 신앙심을 키우고 꿈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기억은 지금까지의 삶에 윤기를 더 해주고 있다.

특별히 모임을 마감하는 행사로서의 캠프와 이어나 촛불예배에서 얻은 감명은 잊을 수가 없다. 그때 모닥불가에서 피워 올린 꿈이 지금도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다고 해도 틀리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젊은이들에게 기회 있을 때마다 캠핑이나 집단생활을 적극 권장하며, 그때에 대한 향수로 나는 그 후에도 겨울에는 벽난로가 있는 별장을 찾아 다니며 불꽃 옆에 앉아 친구들과 말꽃을 피우며 밤샘을 하곤 했다.

20대는 가정을 가진 30,40대처럼 가정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생활을 활기차게 펼쳐 나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기치 않게 보람 있는 일도 생기곤 한다. 어느 성탄절 아침이었다. 몇 동료들과 상자마다 쌀과 고기와 과일 등을 가득 담고 당시 중량교 독 근처의 판자촌을 찾아가 나누어 주었던 일이 있다. 별것이 아니었던 우리의 방문으로 온 판자촌이 생기를 찾은 것 같아 무척 기뻐다. 특히 어느 집의 주부는 임신중독으로 위독상태에 있었던 터라 우리의

선물상자가 그 가정에는 뜻밖으로 큰 구호품이 되었다. 그때의 일은 지금도 나에게 따뜻한 경험으로 남아 있다. 다만 이런 보람 있는 행동을 생각처럼 더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쉽다.

6·25를 겪은 우리 세대에게는 그 난리통에서 살아 남기 위한 노력이 가장 힘들었던 일로 기억되고 있을 것이다. 지금 생각해도 몸서리 쳐지는 일들이다. 상당한 기간을 천정에 숨어 울려 다 주는 주먹밥을 먹어야 했고, 천정에다 대고 무조건 총부터 쏘아대던 그 총알을 피하기 위해 두껍게 깔아 놓은 이불 위에 며칠을 숨죽이고 있었던 일들은 회상하기조차 싫다.

마침내는 더 이상 집안에 숨어 있을 수가 없어서 아주머니처럼 머리를 틀어 올리고 친구들과 함께 낮에는 시장에 나가 장사도 했다. 하루를 보내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길목에는 튀김장수가 있었다. 달콤하고 구수한 냄새의 그 튀김은 우리의 군침을 자아내게 했었지만 한번도 못사먹은 한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 당시에는 식량부족으로 우리 모두는 너무도 배가 고팠다.

견문을 넓혀준 해외여행

나는 20대에 훌륭한 어른과 지도자들을 많이 만날 수 있었다. 대학에 입학하면서 YWCA 회원으로 출발해서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생부간사를 거쳐 총무가 되기까지 교계와 학계의 지도자들을 알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우리나라 굴지의 여성지도자들과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여성운동으로 보낸 나의 20대의 특권이 아닐수 없다. 이제는 거의 은퇴하여 일부러 찾아가 봐야만 할 처지에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죄송스럽다. 그래서 아마도 여자제자들은 소용이 없다고들 하는지 모르겠다.

후회하는 일이 있다면 학창시절에 대학생운동이다, 농촌봉사다, 사회봉사다 그리고 교회봉사다하며 분주하게 날 댄 나머지 공부를 착실히 하지 못한 일이다. 공부도 함께 착실히 했었다면 지금도 심심치 않게 남편과 아들에게서 무식을 탓하는 핀잔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내 나름대로의 삶을 독립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었을 터인데 하는 생각이 드는 때가 더러 있다.

20대에 내가 누린 특권 중의 특권은 YWCA 운동이 세계적인 운동이었기에 수차례에 걸쳐 외국여행을 다녀올 수 있었다는 것이다. 크고 작은 국제모임에 참가해서 견문을 넓히며 우물

안의 개구리 신세를 면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많은 친구들과 사귀게 된 것은 큰 행운이었다. 나의 20대를 위해 사회는 많은 것을 투자해 주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는 사회에 큰 빚을 지고 있는 셈이다. 일생을 두고 갚아야 할 빚이다. 그래서 나는 40대 초반에 아이를 돌보는 일과 집안 살림 때문에 여성운동체의 실무자라는 전담 일꾼의 책임에서 발을 빼 놓고도 아직 자원봉사자라는 이름으로 운동체의 일원으로 일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여성운동은 나의 삶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나는 많은 것을 배웠고 느꼈고 깨달았다. 내 나름대로 나의 삶을 채우기 위한 노력을 나는 20대에 열심히 해 내느라고 했다. 그러한 노력은 아직도 나에게 있어 줄지 않고 있다고 자부해 본다.

이제 지난날을 더듬으며 오늘의 내가 있게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건들이, 그리고 많은 투자들이 있었던 것을 되새기며 깊은 감회에 젖는다. 나의 삶을 풍요하게 해준 따뜻한 눈길과 손길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보살핌으로 나밖에 모르던 이기심을 부끄러워할 줄도 알게 되었고 내가 잘살기 위해서는 더불어 사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된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모른다.

우리 세대는 난리로 겪어야 했던 세대라고 하나 그 나름대로의 목표가 뚜렷했던 것이 우리를 굳게 살게 해준 것이 아닌가 싶다. 오늘의 20대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우리의 것과는 그 양상이 다르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심도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것을 마음 아파한다. 경쟁이 엄청난 것은 사실이나 분명한 것은 기회의 문은 훨씬 넓게 열려져 있다는 점이다.

누가 말했듯이 삶에는 연습이 없다고 한다. 고등학교생활이 대학생을 위한 연습기가 아니며 처녀시절은 결혼생활을 위한 연습기가 아니다. 삶은 잠깐 거치는 수단이 아니다. 그리고 보면 오늘 내가 선자리에서 내 삶을 채워야 하는 책임을 우리 각자는 자기세대에 알맞게 져야만 한다.

지난 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누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그래서도 안된다. 나의 삶은 내가 책임지고 후회없이 살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살아야 하고 나는 생각한다. ■